

**특집**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 금년 해외건설 700억 달러 수주에 큰 어려움 없을 듯

- 올 상반기에 역대 최고인 375억 달러 수주, 하반기에는 352억 달러 수주 전망 -

김운중 | 해외건설협회 진출지원실장

해외건설은 올 상반기에 쿠웨이트, 이라크, 알제리 등 중동과 베네수엘라에서 대형 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면서 375억 달러를 기록, 상반기 기준 해외건설 역사상 최고의 수주 기록을 달성했다. 이 같은 수주 호황은 플랜트 발주 규모 대형화 추세와 유망 및 신시장 개척 노력 결실, 우리 기업간 경쟁력을 갖춘 부문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2014년 세계 건설시장 9.6조 달러 추정

2014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중국의 불경기, 우크라이나 사태, 이머징 마켓 불황 등에도 불구하고 2013년(9조 314억 달러)보다 4.6% 증가한 9.6조 달러로 추계되고 있다. 이 같은 성장 추세는 향후

5년 간 연평균 4.3%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2019년 해외 건설시장 규모는 무려 14.8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은 아시아, 공종은 건축 유망

지역적으로는 세계 최대 건설시장인 아시아가 2014년 4.6조 달러 규모를 형성하며, 2019년까지 5% 이상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 7.9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 주력 시장인 중동은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등의 정정(政情) 불안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GCC 국가 위주로 석유·가스 관련 프로젝트와 발전 및 산업 플랜트뿐만 아니라, 토목·건축 공사도 늘어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수주 텃밭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이, 중남미는 기본적인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활성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베네수엘라, 칠레 등에서는 발전·정유 시장이 유망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

세계 건설시장 규모 및 국내총생산(GDP)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세계건설시장 규모	90,314	96,484	106,749	116,670	126,795	137,388	148,738
GDP 규모	708,583	734,778	774,612	817,323	864,276	912,928	960,711
건설시장 성장률(%)	2.0	4.6	5.2	4.2	4.1	4.0	4.0
경제 성장률(%)	3.0	3.6	3.9	4.0	3.9	3.9	3.9

출처: Global Insight(2014. 4), IMF(2014. 6).

의 경우 서유럽(영국 및 독일 등)은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사업이, 동유럽은 EU기금을 활용한 교통, 발전, 환경 부문에 대규모가 투자가 예정되어 있어, 수년 내 우리 기업이 참여 가능한 규모 있는 시장 형성 가능성을 주목해볼 만하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 2.7조 달러로 세계 1위 시장 자리를 굳히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9,963억 달러), 일본(6,644억 달러), 인도(4,482억 달러) 순이고, 인도·인도네시아·UAE 등은 5% 이상 성장률을 기록하여 향후 진출 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종별로는 건축(5.1조 달러, 2014년 기준), 산업설비(2.8조 달러), 토목(1.6조 달러) 순으로 시장 규모를 형성하는 가운데, 건축시장은 향후 5년 간 평균 4% 성장률을 시현, 2019년에는 7.7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시아와 중동이 주도하는 토목 인프라시장과 우리 기업의 주력 업종인 산업설비는 2019년 각각 2.6조 달러와 4.5조 달러 규모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상반기, 선별 수주로 375억 달러 달성**

올해 상반기 수주액은 전년 동기

와 비교하여 22% 증가한 375억 달러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특히 우리 기업이 작년 어닝 쇼크에서 벗어나 해외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 속에서 달성한 실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중동 재약진, 고부가가치 플랜트 우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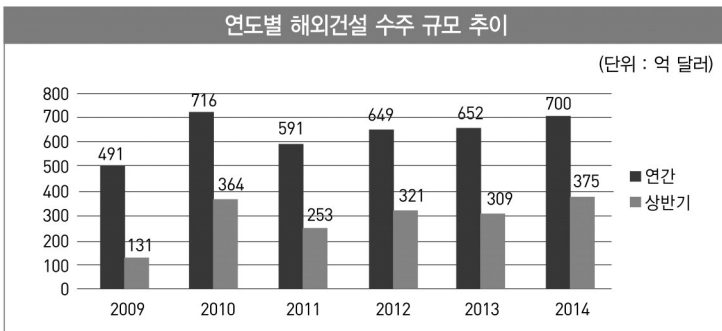
2014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특징 중 하나는 중동 지역의 재도약이다. 작년 한 해 아시아시장에서는 276억 달러를 수주하여,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중동을 제치고 수주 1위 지역으로 등극하였다. 하지만 우리 해외건설업계는 올 상반기 중동에서만 247억 달러를 수주함으로써 전체 수주액 중 중동의 비중이 66%를 차지하였다. 지난 3년 간 61~73% 수준이었던 플랜트는 금년 상반기 85%를 점유하여 플랜트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 기업간 합작 사례 증가**

한편, 올 상반기에는 우리 기업간 합작을 통한 수주가 확대되어 역대 최고 금액인 185억 달러(36건)를 기록하는 등 업계의 전략적 협업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업계가 중동 및 아시아에 치우친 수주 구조 개선을 위해 꾸준히 신시장 개척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에는 현대건설이 베네수엘라에서 43억 달러 규모의 뿌에르토 라크루즈 정유공장을 수주했으며, 하반기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형 가스처리시설 공사 수주가 예상되는 등 중남미, 중앙아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하반기 325억 달러 계약 예상**

2014년 하반기 우리 해외건설의 가장 큰 변수는 이라크, 리비아 등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다. 특히, 이라크 내전의 경우, 단기 국지전



주 : 2014년 연간 수주 규모는 전망치임. 자료 : 해외건설통합관리시스템(해외건설협회).

**특집**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으로 종결되지 않고 장기 국지전으로 지속될 경우 정부 발주 물량 감소와 석유 메이저의 신규 투자가 지연되어 주력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라크에서의 수주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내전이 단기간에 종결될 경우,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유전 개발사업, 신도시 후속 공사 등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올 하반기에 계약이 예상되는 공사는 대략 325억 달러로 파악되고 있어, 금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2013년 실적(652억 달러) 대비 7.4% 증가한 7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동의 경우 최근 신규 발주가 이어지면서 하반기에 UAE, 카타르 등에서 원전, 플랜트, 철도 등 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현재 협상 중에 있다. 중동은 이라크 리스크 증가, 리비아 정세 불안, 사우디에서의 수주 감소 등 불안 요소가 잠재하고 있으나 하반기에 120억 달러 규모의 수주가 예상된다.

**120억 달러 NRP 사업 '잭팟' 기대**

특히, 하반기에는 전체 패키지 5개 중 우리 기업이 모두 PQ 통과되어 입찰을 준비 중인 총사업비 120억 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신규

정유공장(NRP)에서 선전할 경우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초 대형 공사 수주 소식도 기대해볼 만하다. 상반기에 다소 약세를 보였던 아시아는 하반기에 1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예정되어 있어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는 대형 플랜트 공사, 기존 수주 텃밭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서 대규모 발전소, 매립 공사 등의 수주가 예상된다. 기타 우리 기업의 신시장 개척 노력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중남미, 유럽, 북미·태평양 지역 등에서도 발전소 등 각종 산업설비 수주가 전망된다.

**새로운 수주 패러다임 구축해야**

금년 우리 해외건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수적, 선별 입찰 참여 전략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작년과 올해 초까지 이어졌던 어닝 쇼크 문제가 일단락되고 있다.

우리 건설기업들은 세계 EPC시장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EPC부문은 중국이 우리보다 3배 가량 높은 계약고를 올리고 있으며, 그간 경쟁력을 강화한 현지 기업은 물론, 터키, 인도 등 후발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

어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가 설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속 가능한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통한 연간 수주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수주 패러다임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장 규모가 EPC시장 이상이며, 부가가치가 높아 선진 기업이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FEED, Process Licensing, PMC, CM/PM, O&M, CM at Risk와 각종 투자 개발형 사업(PPP, BOT, BOO)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온다.

이에 우리 건설기업들은 당장의 실적 향상이라는 단기 과제에 함몰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선진국이 선점하고 있는 블루오션 시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기업 자체적인 원천 기술 확보를 포함한 기술 개발, 기획, 사업 운영 능력 및 금융 조달 능력 배양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어우러지고 강한 도전정신까지 더해진다면 해외건설 3대 강국 진입도 머나먼 얘기는 아닐 것이다. 